

한국인 영어 학습자의 "be"의 범주적 특성*

양 현 권
(서울대학교)

Yang, Hyun-Kwon. 2001. *Categorial Properties of Korean EFL Learners' Be*. *Korean Journal of English Language and Linguistics* 1-1, 59-79. This paper examines syntactic categorial properties of "be" in Korean EFL beginners' utterances. Mainly based upon the acquisition data in Han (2000) and Shin (2000), it proposes that the so-called "S-be-X" construction is a projection of "underdeveloped" functional category *F*. The projection *FP* is different from other standard functional categories in that its head is not fully fledged.

1. 서론

다음은 Han(2000:89)에서 옮겨 온 것이다.¹⁾

- (1a) cat is big "This cat is big."
(1b) she is cookie "She is eating cookies."
(1c) Sally is eat "Sally is eating bread."

이 예들은 영어를 외국어로 학습하는 한국인 학습자—특히, 영어를 처음 배우는 학습자—의 발화에서 거의 예외 없이 발견된다. (이하에서는, 논의의 편의를 위하여, "영어 학습자"라고 약칭하기로 한다) 위 (1)에 인용된 예의 두드러진 특징은 그 구조가 "명사(구)-be 동사-형용사(구)·명사(구)·동사(구)"를 이루고 있다는 점이다: 이 구조를 Han(2000)에서는 "S-be-X" 구문이라고 명명하였던 바, 이 논문에서는 "be 구문"이

*익명의 논평자 세 분의 논평은 이 논문의 논지를 다듬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이들의 도움에 감사한다.

¹⁾이 논문의 주된 경험적 자료는 Han(2000)과 Shin(2000)에 제시되고 논의된 영어 학습자의 발화에 근거한다.

라고 약칭하기로 한다.²⁾

한편, 다음 (2)는 “be 구문”이 초기 영어 학습자의 부정문 발화에서도 관찰됨을 예시하며,

- (2a) he is no hair
"He has no hair."
(2b) she is not sandwich
"She doesn't eat sandwiches."
(2c) Tommy is no egg
"Tommy doesn't eat egg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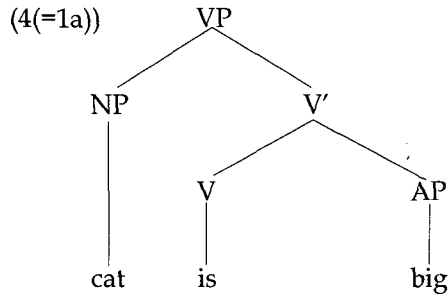
다음 (3)은 “be 구문”이 영어 학습자의 의문문 발화에서도 관찰됨을 예시한다.³⁾

- (3a) she is happy?
"Is she happy?"
(3b) she is egg eat?
"Does she eat eggs?"
(3c) she is piano?
"Is she playing the pian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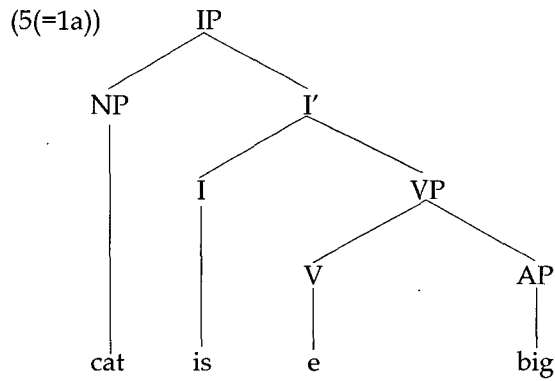
제2언어 습득 이론 및 외국어 학습 이론에서는 “be 구문”에 대하여 세 가지 서로 다른 분석이 제시되어 왔는데, “동사구(VP) 분석,” “굴절소구(IP) 분석” 그리고 “주제어-평언(topic-comment) 분석”이 그 각각의 견해에 해당한다. 먼저, 동사구 분석에서는 (1a)를 다음 (4)와 같은 구조로 이해한다.

²⁾“S-be-X”에서 “S”는 주어(subject)를 가리키고 “X”는 주어와 “be” 이외의 나머지 요소를 가리킨다. Han(2000) 및 Shin(2000)에 따르면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영어 학습자의 발달 단계는 다음과 같다: 어휘 단계(Word Stage) - S-be-X 단계 - 완전 동사구 단계(Full VP Stage) - 굴절소구 단계(IP Stage) - 보문소구 단계(CP Stage). 즉, “S-be-X”는 영어 학습 초기에 관찰되는 구조이다.

³⁾(3)에 제시된 예들은 억양 의문문(intonation question)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들 의문문은 이른바 “2-3-1”이라는 가부 의문문(Yes-No question)고유의 억양으로 발화된다.



이 분석에서는, 수형도 (4)에 구체적으로 예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be"를 문장의 주된 술어(main predicate) 성분으로 이해한다. 한편, IP 분석에서는 (1a)를 다음 (5)와 같은 구조로 파악한다.



이 분석에서는 "be"를 굴절소(inflexion) 성분으로 이해하는데, 이 입장은 "be 구문"을 기능 범주의 투사(projection of a functional category)로 파악한다는 점에서 VP 분석과 대조를 이룬다.⁴⁾ 마지막으로, 주제어-평언 분석에서는 (1a)를 다음 (6)과 같은 구조로 이해한다.

⁴지배 결속 이론 및 최소주의 이론에서는 통사적 범주를 어휘 범주와 기능 범주로 구분하는데, 어휘 범주에는 동사, 명사 및 형용사 등이 속하고 기능 범주에는 굴절소 및 보문소 등이 속한다. 어휘 범주와 기능 범주에 관한 상세한 논의는 Chomsky(1981, 1995)를 참고하기 바람.

(6(=1a))

cat	is	big
주제어	주제어 표시자	평언

이 분석에서는, “be 구문”의 첫머리에 나타나는 요소—(6)에서는 “cat”—을 주제어(topic) 성분으로 이해하는 한편, “be”를 주제어의 자격을 표시하는 요소, 즉 주제어 표시자(topic marker) 성분으로 분석한다. 또한 이 분석에서는 “be” 다음에 나타나는 나머지 요소를 평언(comment) 성분을 이루는 것으로 파악한다.

이 논문에서는 “be 구문”에 사용되는 “be”의 통사 범주적 특징을 밝히는 것을 그 주된 목적으로 삼는다. 논의의 결론을 예 (1a)와 결부하여 제시하면, 이 논문에서는 “be 구문”을 미발달 기능 범주(underdeveloped functional category)가 핵(head)을 이루는 최대 투사(maximal projection) 범주로 이해한다.⁵⁾

(7(=1a)) [FP cat [F [Fis] big]]

↑
기능 범주 핵(functional head)

수형도 (7)에서 “F”는 미발달 기능 범주로서 “be 구문”의 핵으로 기능하며, “FP”는 “be 구문” 전체의 최대 투사에 해당한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논의의 전개를 위하여, 먼저 2장에서 “be 구문”에 대한 선행 연구를 “동사구 분석,” “굴절소구 분석,” 그리고 “주제어-평언 분석”의 순서로 개관하고 이들 분석이 지니는 주요한 문제점을 살펴본다. 3장에서는 미발달 기능 범주로서의 “be”에 대한 본격적 논의를 제안하고, 이 제안을 뒷받침하기 위한 이론 내외적 근거를 제시한다. 4장은 논문의 마무리에 해당한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논의의 경험적 바탕을 Han(2000)과 Shin(2000)에 두는

⁵⁾ “미발달 기능 범주”라는 개념은 그 유사 개념이 Vainikka/Young-Sholten(1994)에 의해 제안된 바 있다. Vainikka/Young-Sholten에서는 “미명시(underspecified) 범주”로서의 기능 범주를 상정하였던 바, Yang(2001)에는 “미명시 범주”와 “미발달 기능 범주”의 통사범주적 특징에 대한 상세한 논의가 제시되어 있다.

바, Han(2000)은 초중기 영어 학습자의 습득 과정에 대한 종단적 연구인 반면 Shin(2000)은 초중기 영어 학습자의 습득 과정에 대한 횡단적 집단 연구이다.

2. "be 구문"에 대한 여러 관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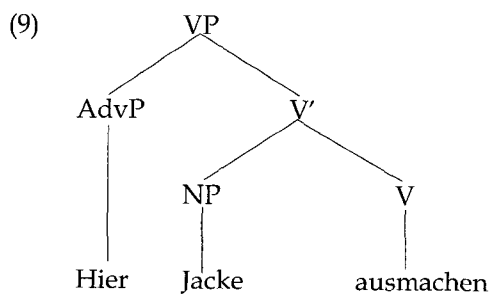
2.1 동사구 분석

Vainikka/Young-Scholten(1994, 1996a, 1996b)에 따르면, 어떤 언어를 제2언어로 학습하는 경우 초기 학습자는 예외 없이 동사구 구조 단계를 거친다. 이들에 따르면, 제2언어 학습의 초기 단계에서는, 모국어 습득의 초기 단계에서와 마찬가지로, 문장의 구구조에 기능 범주 투사(functional category projection)가 결여된다.

다음은 Vainikka/Young-Scholten(1994)에서 인용한 것으로, 이 예는 독일어를 제2언어로 학습하는 한국인 학생의 발화이다.

- (8) Hier Jacke ausmachen.
 here jacket off-make
 '(You) took (your) jacket of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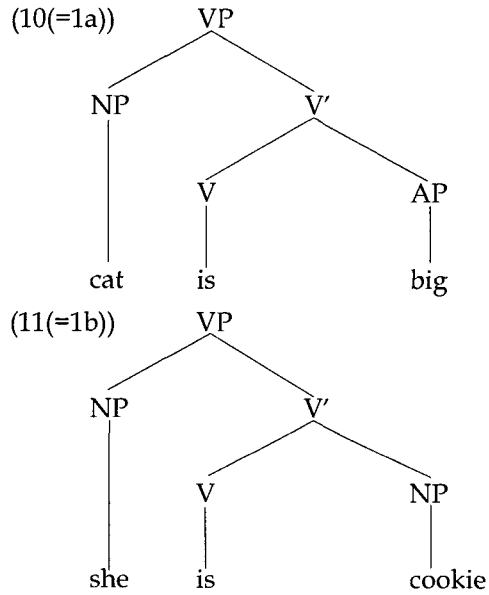
초기 영어 학습자들은 예외 없이 동사구 단계를 거친다고 보는 동사구 분석에서는 문장의 기본적 구조에 어떠한 기능 범주도 상징하지 않으므로, (8)과 같은 발화는 다음과 같은 수형 구조를 지니는 것으로 이해한다.



(9)에서는 'ausmachen'이 어휘 동사(lexical verb)로 기능하며, 문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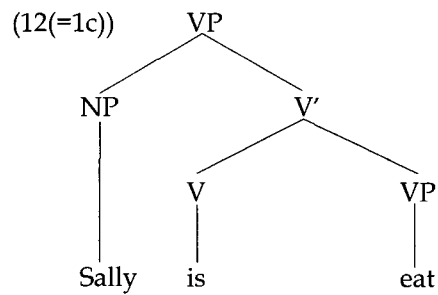
전체는 동사구에 해당한다.

이와 같이 제2언어 학습의 초기 단계를 동사구 단계로 보는 입장에서, 우리의 관심사인 “be 구문” (1a)와 (1b)를 다음과 같은 구조로 파악할 것이다.



위 구조 (10)과 (11)에서 “be”는 문장의 주된 서술어의 역할을 하며, (10)에서의 형용사구 ‘big’과 (11)에서의 명사구 ‘cookie’는 주된 술어 “be”의 보(충)어(complement)로 기능한다.

“be 구문”을 동사구 구조로 이해하는 입장에서 (1c)는 다음 (12)와 같은 구조로 파악할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분석은 구구조(phrase structure)의 기본 원리와 관련하여 문제가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1c)를 의미·구조적인 측면에서 볼 때 그 주된 술어는 'eat'이다. 그런데, (12)에서는 'eat'라는 동사뿐만 아니라 'is'도 (1c)의 주된 술어, 즉 어휘 동사(lexical verb)로 이해하고 있다. 이 때 문제가 되는 점은 하나의 단문(simple sentence) 구조에 둘 이상의 주된 술어가 나타날 수 있는가 하는 것으로, 일반적인 구구조 원리에 따르면 이에 대한 답은 부정적이다.⁶⁾

한편, (1c)와 같은 "be 구문"에서 주된 술어가 하나만 존재해야 한다면, 'is'와 'eat' 가운데 어떤 요소가 주된 술어인지를 결정해야 하는 문제가 대두되는데, 다음과 같은 예는 "be 구문"에서 "be"는 주된 술어가 아니라 기능 범주의 역할을 함을 보여준다.

- (13) You are Korean talk
'You are talking in Korean.'
- (14) I am comb
'I have a comb.'

(13)과 (14)는, Han(2000)에서 인용한 것으로, 이들 예는, Han(2000)에 따르면, "S-be-X" 단계의 대표적 발화에 해당한다. 이들 (13)과 (14)에서 "be"는 각 문장의 주어가 무엇인가에 따라 다른데, 이러한 사실은 이들 "be 구문"에서 "be"가 주어와의 일치(agreement) 관계를 형성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13)에서는 2인칭 주어에 해당하는 "be"인 'are'가 사용되었고, (14)에서는 1인칭 단수 주어에 해당하는 "be"인 'am'이 사용되었다. 한편, 일치 관계는 일반적으로 기능 범주 고유의 특질로 이해되는 바, 이는 곧 "be 구문"에서의 "be"가 주된 술어가 아니라 기능 범주임을 의미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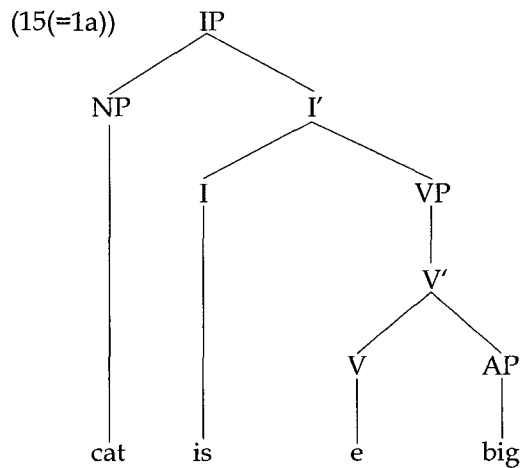
⁶⁾Chomsky(1993, 1995) 등에 따르면, 한 문장에는 주된 동사 이외에 영동사 (null verb; *v*)가 있을 수 있으며, 그 구체적 위계 구조는 다음과 같다: . . . *v* [_{VP} . . .] . . . 이 영동사구 구조는 Hale과 Keyser(1993)의 제안에 근거한 것으로, 이 구조에서 영동사는 주된 술어로서의 어휘핵(lexical head)이라기보다는 기능 범주이다. 또한, 다음과 같은 사역 구문 등의 특수 구문에서도 동사가 동사구를 지배하는 구조가 상정되기도 한다: John [_{VP} let [_{VP} Mary leave early]]. 그런데 이들 특수 구문은 단문의 구조가 아니라 복문의 구조를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논점이 되고 있는 구조 (12)와는 차이가 있다.

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면, “be 구문”을 동사구로 파악하는 동사구 분석은 이 분석에서 제안하는 구구조가 (가) 일반적 구구조의 원리와 조화롭지 못할 뿐만 아니라 (나) “be 구문”에서 “be”가 기능 범주로 기능하고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점을 지닌다. 바로 이러한 연유로 동사구 분석은 “be 구문”에 대한 적절한 분석으로 이해되기 어려울 것이다.

2.2 굴절소구 분석

2.1의 논의에서는 “be 구문”에서의 “be”가 일치 자질을 지니는 기능 범주일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원리와 매개 변인 이론(Principles and Parameters theory) 및 최소주의 이론(Minimalist Program)에 따르면, 일치 자질—특히, 주어와의 일치 자질—은 굴절소(inflexion) 성분과 같은 기능 범주가 지니는 것으로 전제되는 바, 이러한 가정에 근거하여 “be 구문”을 이해한다면 (1a)는 다음과 같은 구조를 지니는 것으로 분석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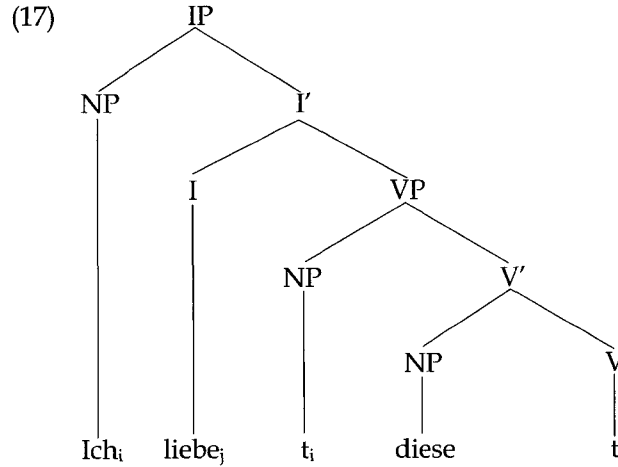


(15)에서 ‘is’는 굴절소구의 핵에 해당하며, 동사구의 핵은 비어있고 ‘big’은 빈 동사의 보(충)어에 해당한다.

한편, 다음 (16)은 독일어를 제2언어로 학습하는 학습자의 발화를 Vainikka/Young-Scholten(1994)에서 인용한 것인데,

(16) Ich liebe diese

이들에 따르면 (16)은 다음과 같은 구조를 지니는 것으로 이해된다.⁷⁾



Vainikka/Young-Scholten(1994)에 따르면, 굴절소구 단계의 주된 특징 가운데 한 가지는 동사가 굴절소 위치로 인상된다는 것이다: (16)에서 'liebe'라는 동사가 "I(NFL)"로 이동하였다. 굴절소구 단계의 또 다른 주요한 특징 가운데 한 가지는 범조동사(modal auxiliary) 등의 조동사 표현이 굴절소 위치에 나타난다는 것이다.

(18a) Must go Catherin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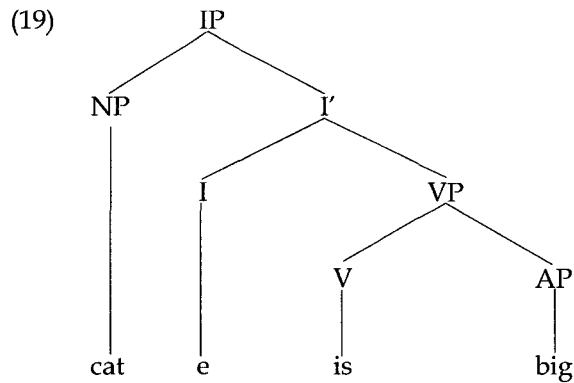
(18b) I can write

그런데, "be 구문" 단계에 속한 학습자들의 발화에서는, Han (2000)과 Shin(2000)에 자세히 논의되어 있는 바와 같이, Vainikka/

⁷⁾(17)에서는 주어 'Ich'가 동사구의 지정어 위치로부터 굴절소구의 지정어 위치로 이동한 것으로 분석되어 있다. Vainikka/Young-Scholten(1994)에 따르면 주어의 이러한 이동 또한 굴절소구 단계의 주된 통사적 특징 가운데 한 가지이다. 만약 이러한 논의를 (15)에 적용한다면, (15)에서 굴절소구의 지정어 위치에 자리한 명사구 'cat'은 동사구의 지정어 위치로부터 이동해 온 것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Young-Scholten(1994)에서 굴절소구의 주된 특징으로 제안된 특징들이 관찰되지 않는다. 이를테면, (1a)와 (1b)에는 굴절소로 이동할 동사가 존재하지 않으며, 동사가 존재하는 (1c)에서는 동사가 굴절소로 이동하지 않는다. 또한 “be 구문” 단계에 있는 학습자들의 발화에서는 법조동사 등의 조동사 표현이 관찰되지 않는다. “be 구문”이 굴절소구의 특징을 보이는 점이 있다면, 이는 앞선 2.1의 논의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be”에 일치어 자질이 나타난다는 점이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사실에 근거하여 “be 구문”을 “완전한 굴절소구”라고 보기 어렵다고 이해한다.⁸⁾ 보다 구체적으로는, 이 논문에서는 “be 구문”을 “미발달 기능 범주”로 파악하고자 한다.

굴절소구 분석의 기본 가정을 따르면서 “be 구문”을 (15)와는 다른 구조로 이해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다음 (19)에서는, (15)에 서와는 달리, “be”가 굴절소의 핵으로 기능하지 않고 동사로서 기능한다.



그러나, 이 구조는 “be”를 굴절소로 보지 않고 동사로 이해한다는 점에서 “굴절소구 분석”이라기 보다는 “동사구 분석”으로 이해되어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이 분석에서는 “Sally is eat”과 같은 발화를 어떠한 구구조로 분석하여야 할지와 관련하여 심각한 문제가 대두되는데, 그 까닭은 이 발화에서 ‘is’가 동사구의 핵이라면 ‘eat’는 어떤 성분으로 분석되어야 할지가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⁸⁾Han(2000)에는 굴절소구 분석에 대한 비판적 논의가 또 다른 시각에서 제시되어 있다.

2.3 주제어-평언 분석

“be 구문”에 대한 또 다른 접근으로 “주제어-평언” 분석이 있다. 이 견해에 따르면 “be 구문”은 “주제어-평언”의 구조를 이루는데, 이 때의 “주제어”라는 개념은 Li/Thompson(1976) 등의 제안에 근거한다. Li/Thompson(1976)에 따르면, 자연 언어는 주제어 및 주어가 통사·의미적으로 부각되는 정도에 따라 크게 두 부류로 구분된다. 그 한 부류가 주제어가 부각되는 언어(topic prominent language)이며, 다른 한 부류가 주어가 부각되는 언어(subject prominent language)이다. 한국어와 일본어와 같은 언어는 “주제어 부각 언어”인데, 이들 언어에서는 “주어”라는 개념보다는 “주제어”라는 개념이 문장 구조의 특성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영어와 불어와 같은 언어는 “주어가 부각된 언어”인데, 이들 언어에서는 “주어(부)”라는 문법적 개념이 문장의 기본적 틀을 형성하는데 지배적 역할을 한다.

다음은 “be 구문”의 구조를 Huebner(1983) 및 Han(2000)의 제안에 바탕을 두어 제시한 것이다.⁹⁾

(20(=1a))

cat	is	big
주제어	주제어 표시자	평언

(20)에서는 “be”를 선행하는 요소가 주제어에 해당하며, “be”는 주제어 표시자로 기능한다.

“be 구문”에 대한 (20)에서와 같은 분석은,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영어 학습자가 학습의 초기 단계에 거의 예외 없이 “be 구문”을 발화한다는 현상을 자연스럽게 설명하는 이점이 있다. 즉, 이 분석에서는 한국어와 같은 주제어 부각 언어를 모국어로 하는 학습자는 모국어의 영향으로 주제어가 부각된 구조, 즉 “be 구문”을 학습 초기에 발화하는 경향이 있음을 자연스럽게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음은 Shin(2000)에서 인용한 것이다.

⁹⁾Han(2000)에는 “be 구문”의 구구조에 대한 논의가 제시되어 있다.

- (21a) He, family is four
'As for him, he has four members in his family.'
- (21) He, family is father, mother and Jung-Jae
'As for him, his family consists of father, mother, and Jung-Jae.'
- (21c) She, subject is math
'As for her, her favorite subject is math.'

이 예들의 공통적 특징 가운데 흥미로운 점은 그 구조가 “명사구+명사구+be+X”의 형태를 취한다는 점이다. 이 예들의 구조는 그 기본적인 골격에 있어서 이른바 한국어의 이중 주어 구문(Double Subject Construction)의 기본적 틀과 유사한데, 이 예들에 해당하는 한국어의 이중 주어 구문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 (22a) 그는 가족이 넷이야.
(22b) 그는 가족이 아빠, 엄마 그리고 정재야.
(22c) 그 여자는 (좋아하는) 과목이 수학이야.

한국어의 이중 주어 구문에 관한 일반적 분석에 따르면, 이중 주어 문장의 두 주어 가운데 왼쪽에 나타나는 주어가 대주어로서 주제어 성분이고 그 뒤에 따라 나타나는 주어는 소주어로서 비주제어 성분이다.¹⁰⁾ 이를 (22a)를 예로 삼아 도식화하면 (23)과 같다.

(23)	그는	가족이	넷이야
	대주어/주제	소주어	술어

만약, 주제어-평언 분석에 입각하여 “be 구문”을 주제-평언 구조로 이해하고자 한다면, 명사구가 둘 사용된 “be 구문” 즉 “명사구+명사구+be+X”의 형태의 구문에서 “be”는 첫 번째 명사구 다음에 사용되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주제어-평언 분석에 따르면, “be 구문”의 “be”는 주제어 표시자인 한편, 명사구가 둘 사용된 이중

¹⁰⁾한국어의 주어, 이중 주어 구문에 대한 상세한 논의에 대해서는 Ahn (1990), Han(1987), Lee(1970) 및 Yoon(1990) 등을 참고하기 바람.

주어 구문에서 주제어 성분은 첫 번째 명사구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21a), (21b) 및 (21c)에 대응하는 다음과 같은 예는 초기 영어 학습자의 발화에서 관찰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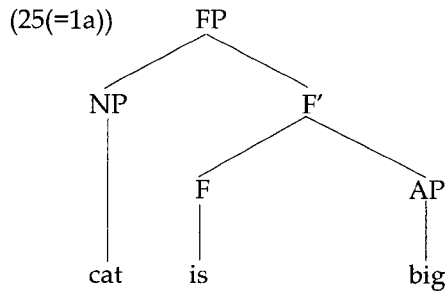
- (24a) he is family four
- (24b) he is family father, mother and Jung-Jae
- (24c) she is subject math

이상 2.3의 논의를 정리하면 "be 구문"을 주제어-평언 구조로 파악하는 분석이 지닐 수 있는 문제점을 주제어 표시자로서의 "be"에 초점을 두어 논의하였고, "be 구문"에서의 "be"를 주제어 표시자로 이해하는 데는 문제가 있을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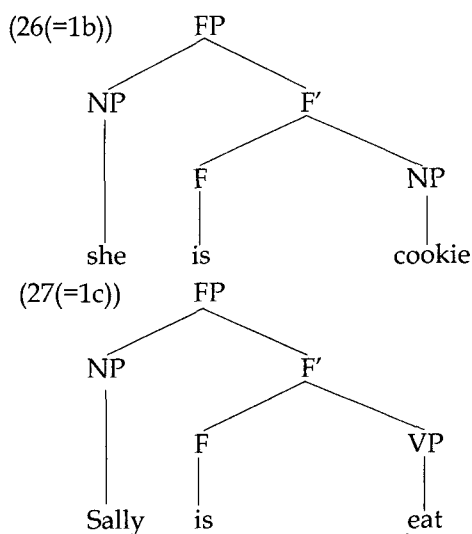
3. 미발달 기능 범주로서의 "be"

이 논문에서는 "be 구문"의 "be"를 미발달 기능 범주로 이해하고자 하는 바, 이 때 "미발달"이란 영어 학습 과정상에 있는 학습자—특히 초기 학습자—의 기능 범주 습득이 완전히 발달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다음 (25)는 미발달 기능 범주의 핵을 F로 상정한 구구조로서, 구체적으로는 (1a)의 구구조를 예시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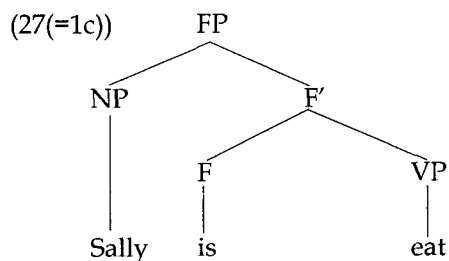


(25)에서는 기능 범주로서의 F가 그 보(충)어로서 형용사구를 취하고 있다. 다음 (26)과 (27)은 (1b)와 (1c)의 구조를 예시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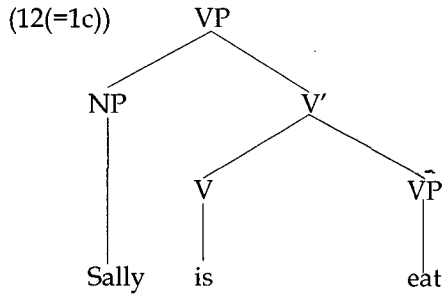


이들 (25), (26), (27)의 공통적 특징은 기능 범주로서의 미발달 범주 F가 그 보(충)어로서 형용사구, 명사구, 동사구라는 어휘 범주구를 취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와 같이 기능 범주가 그 보(충)어로서 어휘 범주구를 택한다는 점은 일반적 구구조 이론에서 허용되는 바이며, 구체적으로는 그 이론적 배경과 근거가 Grimshaw(1979) 및 Chomsky(1995) 등에 자세히 논의되어 있다.

“be 구문”을 미발달 기능 범주의 투사로 이해하는 본 논문의 분석에서는, 2장에서 살펴보았던 세 가지 분석—동사구 분석, 굴절소구 분석 및 주제어-평언 분석—이 안고 있는 여러 문제점이 해소된다. 첫째, (12)와 관련하여 동사구 분석에 대해 제기되었던 의문—어휘 동사가 어휘 동사구를 보(충)어로 선택한다는 문제—이 해소된다. 즉, 미발달 기능 범주 분석에서는 앞선 (27)과 관련된 논의에서 살펴보았듯이,



동사구를 보(충)어로 취하는 핵이 기능 범주이므로 구구조 (12)와 관련하여 제기되었던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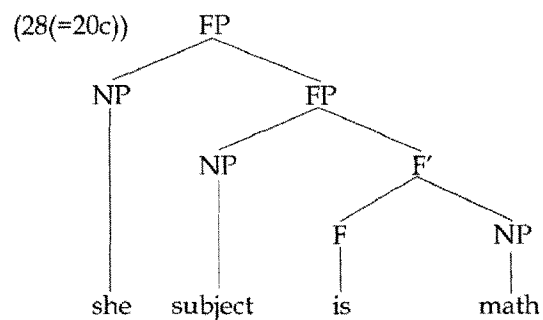


둘째, 굴절소구 분석과 관련하여 제기되었던 문제—즉 만약 초기 영어 학습자의 "be 구문"의 굴절 성분을 완전한 굴절소로 이해한다면, 그 굴절소에는 조동사 표현이 나타나기도 해야 하며 동사가 굴절소로 이동하는 등의 통사적 현상이 관찰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현상이 관찰되지 않는다는 문제점—또한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 까닭은 "be 구문"을 미발달 기능 범주의 투사로 이해하는 본 분석에서는 "be 구문"과 관련된 기능 범주를 완전 굴절소로 이해하지 않고 미완성 굴절 성분으로 이해하기 때문이다. 미발달 범주 투사로서의 "be 구문"의 특질—특히, 동사의 이동에 의한 동사와 굴절소의 융합이 "be 구문"에서는 관찰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한 논의는 3.2에 상세히 제시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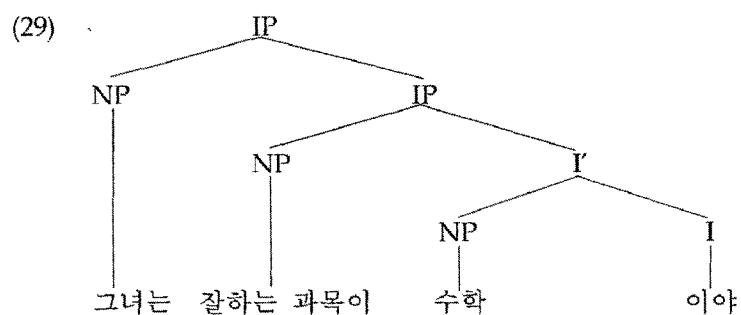
셋째, 다음 예와 관련하여 주제어-평언 분석에 대하여 제기되었던 문제점 또한 문제가 되지 않는다.

- (20a) He, family is four
'As for him, he has four members in his family.'
- (20b) He, family is father, mother and Jung-Jae
'As for him, his family consists of father, mother, and Jung-Jae.'
- (20c) She, subject is math
'As for her, her favorite subject is math.'

미발달 기능 범주를 상징하는 본 논문의 분석에서는 (20c)와 같은 예를 다음과 같은 구조로 파악한다.



이 구조에서 “be”는 그 보(충)어로 명사구를 선택하고, 소주어—(20c)에서 ‘subject’—는 FP의 지정어 자리에 위치하고 대주어—(20c)에서 ‘she’—는 FP에 부가된 자리에 위치한다. 기능 범주 F가 명사구를 보(충)어 성분으로 선택한다는 사실은 일반적인 구구조 원리와 부합되며, 이중 주어를 부가 구조로 파악하는 방안 또한 Han(1987) 및 Yoon(1990) 등에서 확인된 논의이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다음 (29)는 한국어의 이중 주어 구문을 Han(1987)의 논의에 근거하여 제시한 것인데, 이 구조에서는 이중 주어 가운데 왼쪽의 요소인 대주어는 굴절소구에 부가되어 있고 오른쪽 요소인 소주어는 굴절소구의 지정어에 위치한다: 즉, (28)의 구구조는 (29)의 구구조와 크게 다르지 않다.



(28)의 구구조와 (29)의 구구조 사이에 주목할만한 차이가 있다면, 그것은 (가) (28)에서는 굴절소가 미완전 범주인 반면 (29)에서는 완

전 범주라는 점과 (나) (28)에서는 굴절소가 보(충)어에 선행하는데 비하여 (29)에서는 굴절소가 보(충)어 다음에 위치한다는 점이다. 그런데, (28)에서의 굴절소가 미완전 범주라는 점은 본 논문의 주된 제안에 해당하는 것이며, (28)에서 굴절소가 보(충)어에 선행한다는 점은 “be 구문” 단계의 학습자가 핵-매개 변인(head parameter)과 관련된 구조조를 이미 습득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이 단계의 학습자는 영어가, 한국어와는 달리, 핵선행(head-initial) 특징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이미 학습하였다는 것이다.

4 마무리: 미발달 기능 범주의 자질

“be 구문”의 “be”를 미발달 기능 범주로 이해하는 경우, 한 가지 명확히 해야 하는 과제는 기능 범주로서의 “be”가 어떤 자질을 지니며 어떠한 자격으로 기능하는가 하는 점이다. 우리는 앞선 논의에서 “be”가 일치 자질을 지닐 수 있음을 논의한 바 있다. 한편, Han(2000)과 Shin(2000)에 따르면, “be 구문”은 시제가 명시된 독립절(independent clause)에서 사용된다. 이를 굴절 자질의 관점에서 보면, “be”가 시제 자질을 지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be 구문”의 “be”가 이와 같이 일치 자질과 시제 자질을 지닌다는 점만을 고려한다면, 이들 “be”는 전형적인 굴절소와 그 자질에 있어서 서로 다르지 않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영어 초기 학습자에 대한 Han(2000)과 Shin(2000)의 관찰에 따르면, “be 구문”에 나타나는 ‘be’를 완전한 굴절소로 간주하기는 힘들다.

다음 (30)에 제시된 예는 Han(2000)에서 인용한 것이고,

- (30a) Sally is eat
'Sally eats bread.'
- (30b) mummy is make
'Mummy makes breakfast.'
- (30c) she is egg eat?
'Does she eat eggs?'

다음 (31)에 제시된 예는 Shin(2000)에서 인용한 것인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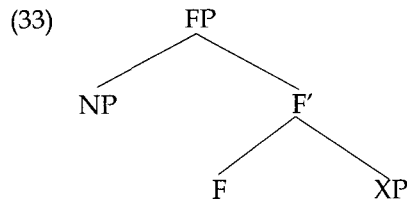
- (31a) I'm like soccer.
'I like soccer.'
- (31b) He is live Lucky Apartment
'He lives in Lucky Apartment.'
- (31c) Danny is play computer.
'Danny plays a computer game.'

이들 "be 구문"의 공통적 특징은 일치 및 시제 자질을 지닌 "be"가 본동사와 결합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는 "be"가 완전한 기능 범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인데, 다음과 같은 예는 이러한 논의의 타당성을 뒷받침한다.

- (32a) he likes hamburger
'He likes hamburgers.'
- (32b) she is, she likes banana
'She likes bananas.'
- (32c) this . . he is, he likes his hotdog
' . . . He likes his hotdog.'

(32)에 제시된 예는 Han(2000)에서 인용한 것으로, Han(2000)에 따르면 이 예들은 "S-be-X" 단계보다 두 단계 위인 "IP 단계"에서 다수 관찰되는 발화들이다. 이 예들을 (30)과 (31)에 예시된 예들과 비교하면, 굴절소 자질이 동사와 융합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앞선 논의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완전한 굴절소는—동사의 굴절소로의 이동을 통하여—동사와 융합한다. 이러한 시각에서 볼 때, "be 구문"에서 관찰되는 기능 범주로서의 굴절소는 완전 굴절소의 자질을 완비하였다고 이해되기 어려울 것이다.

이상의 본 논문의 논의를 정리하면, "be 구문"의 "be"는 "미발달 기능 범주"의 역할을 하며 그 굴절 자질로 일치 자질과 시제 자질을 지닌다.



한편, 기능 범주로서의 "be"는 표준적인 굴절소가 나타내 보이는 여러 통사적 운용을 제대로 드러내지 못한다는 점에서 불완전한 기능 범주의 특징을 지닌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시각에서 보면, "be 구문"의 "be"는 <불완전한 굴절 자질을 지니는 굴절 성분>이라고 정의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Ahn, S.-H. 1990. *Korean Quantification and Universal Grammar*.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Connecticut, Storrs.
- Bohnacker, U. 1997. Determiner phrases and the debate on functional categories in early child language. *Language Acquisition* 6, 49-90.
- Chomsky, N. 1981. *Lectures on Government and Binding*. Dordrecht: Foris.
- Chomsky, N. 1993. A minimalist program for linguistic theory. In K. Hale, and S. J. Keyser, eds., *The View from Building 20*, 1-52.
- Chomsky, N. 1995. Bare phrase structure. In G. Webelhuth, ed., *Government and Binding Theory and the Minimalist Program*. Oxford: Blackwell.
- Clahsen, H., M. Penke, and T. Parodi. 1993/1994. Functional categories in early child German. *Language Acquisition* 3, 395-429.
- Deprez, V. and A. Pierce. 1994. Crosslinguistic evidence for functional projections in early child grammar. In T. Hoekstra and B. D. Schwartz, eds., *Language Acquisition Studies in Generative Grammar*, 57-84. Amsterdam: John Benjamins.
- Eubank, L. 1993/1994. On the transfer of parametric values in L2 development. *Language Acquisition* 3, 183-208.
- Eubank, L. 1994b. Optionality and the initial state in L2 development. In T. Hoekstra and B. D. Schwartz, eds., *Language Acquisition Studies in Generative Grammar*. Amsterdam: John Benjamins.
- Grimshaw, J. 1979. Complement selection and the lexicon. *Linguistics Inquiry* 10, 279-326.
- Grondin, N. and L. White. 1996. Functional categories in child L2

- acquisition of French. *Language Acquisition*. 5, 1-34.
- Guilfoyle, E. and M. Noonan. 1992. Functional categories and language acquisition. *Canadian Journal of Linguistics* 37, 241-272.
- Hale, K. and Keyser S. J. 1993. On argument structure and the lexical expression of syntactic relations. In K. Hale and S. J. Keyser, eds., *The View from Building 20*.
- Han, H.-r. 2000. *UG Availability to Korean EFL Learners: A Longitudinal Study of Different Age Groups*. Doctoral dissert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 Han, H.-S. 1987. *The Configurational Structure of the Korean Language*,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 Hawkins, R. and Y. Chan. 1997. The partial availability of universal grammar in second language acquisition: the failed functional features hypothesis. *Second Language Research* 13, 187-226.
- Hoekstra, T. and B. Schwartz. 1994. Introduction: on the initial states of language acquisition. In T. Hoekstra and B. Schwartz, eds., *Language Acquisition Studies in Generative Grammar*.
- Huebner, T. 1983. *A Longitudinal Analysis of the Acquisition of English*, Karoma Publishers, Inc. Ann Arbor.
- Hulk, A. 1991. Parameter setting and the acquisition of work order in L2 French. *Second Language Research* 7, 1-34.
- Hyams, N. 1983. *The Aquisition of Prameterized Gammars*. Doctoral dissertation. City University of New York
- Kaplan, T. I. 1993. *The Second Language Acquisition of Functional Categories: Complementizer Phrases in English and Japanese*. Doctoral dissertation, Cornell University.
- Lakshmanan, U. 1995. Child second language acquisition of syntax. *Studies in Second Language Acquisition* 17, 301-329.
- Lee, H.-B. 1970. *A Study of Korean Syntax*. Pan Korea Book Corporation, Seoul, Korea.
- Li, C, N. and S. A. Thomson. 1976. Subject and topic: a new typology of language. In C, N. Li, ed., *Subject and Topic*. New York: Academic Press.
- Neeleman, A. and F. Weerman. 1997. L1 and L2 work order acquisition. *Language Acquisition* 6, 125-170.
- Paradis, J. and F. Genesee. 1997. On continuity and the emergence of functional categories in bilingual first-language acquisition. *Language Acquisition* 6, 91-124.
- Radford, A. 1990. The syntax of nominal arguments in early child English. *Language Acquisition* 1, 195-223.
- Schachter, J. 1988. Second language acquisition and its relationship to universal grammar. *Applied Linguistics* 9, 219-235.
- Schwartz, B. and L. Eubank. 1996. What is the 'L2 initial state?' *Second Language Research* 12, 1-5.

- Schwartz, B. and R. Sprouse. 1994. Word order and nominate case in non-native language acquisition: A longitudinal study of (L1 Turkish) German interlanguage. In T. Hoekstra and B. D. Schwartz, eds., *Language Acquisition Studies in Generative Grammar*. Amsterdam: John Benjamins.
- Schwartz, B. and R. Sprouse. 1996. L2 cognitive states and the full transfer/full access model. *Second Language Research* 12, 40-72.
- Shin, J.-S. 2000. *Functional Category Acquisition by Korean EFL Learners: The Role of UG in Foreign Language Learning*. Doctoral dissert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 Vainikka, A. 1993/1994. Case in the development of English syntax. *Language Acquisition* 3, 257-325.
- Vainikka, A. and M. Young-Scholten. 1994. Direct access to X-bar theory: evidence from Korean and Turkish adults learning German. In T. Hoekstra and B. D. Schwartz, eds., *Language Acquisition Studies in Generative Grammar*. Amsterdam: John Benjamins.
- Vainikka, A. and M. Young-Scholten. 1996a. Gradual development of L2 phrase structure. *Second Language Research* 12, 7-39.
- Vainikka, A. and M. Young-Scholten. 1996b. The early stages in adult L2 syntax: additional evidence from Romance speakers. *Second Language Research* 12, 140-176.
- White, L. 1990/1991. The verb-movement parameter in second language acquisition. *Language Acquisition* 1, 337-360.
- Yang, H.-K. 2001. Korean EFL learners' acquisition of "be". Ms., Seoul National University.
- Yip, V. and S. Matthews. 1995. I-interlanguage and typology: the case of topic-prominence. In L. Eubank, et al., eds., *The Current State of Interlanguage*.
- Yoon, J.-Y. 1990. *Korean Syntax and Generalized X-bar Theory*,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양현권

서울 관악구 신림9동 산56-1번지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영어교육과
 우편번호: 151-748
 전화번호: 02)880-7680
 E-mail: yhkeun@plaza.snu.ac.kr

접수일자: 2000. 12. 5.

게재결정: 2001. 1. 15.